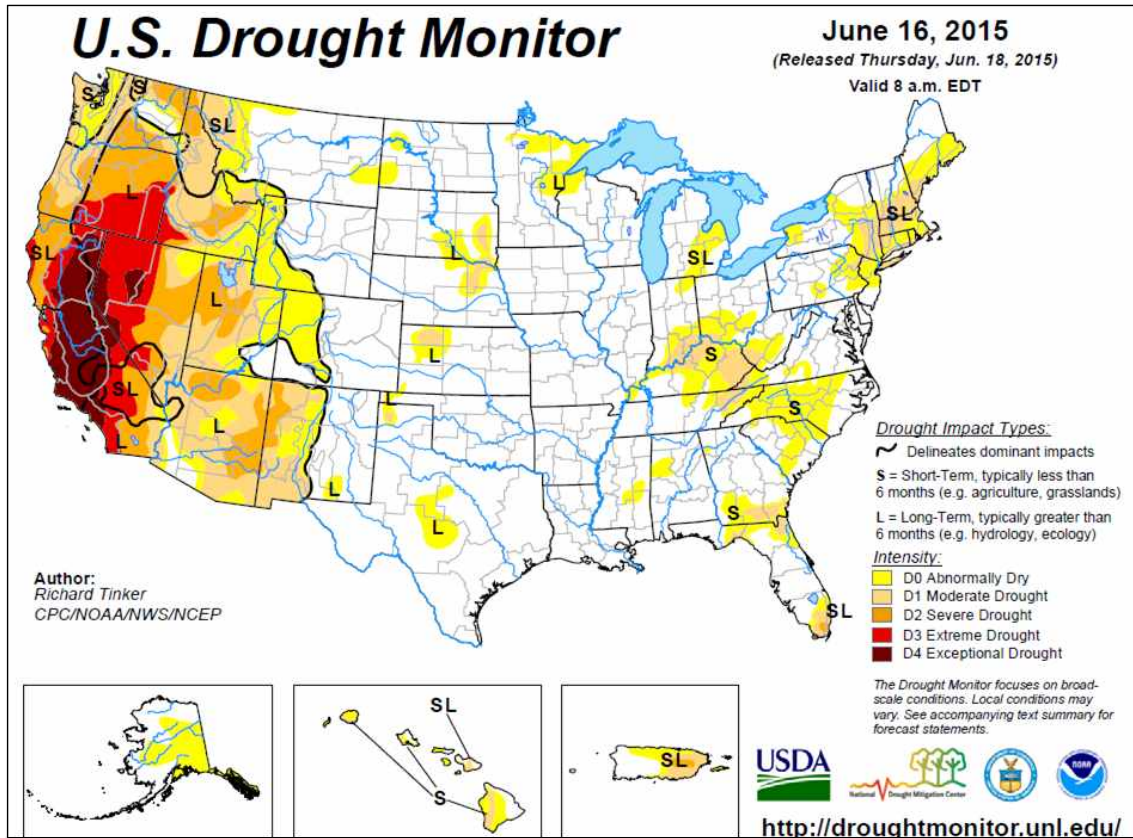


6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5)

□ 미국 기후 현황(6/14~6/20)



열대성 폭풍우 Bill이 6월 16일 텍사스 연안에 상륙해서 남동부 대평원과 남중부, 오하이오 계곡을 느린 속도로 지나갔다. Bill은 6월 20~21일 밤 사이에 대서양 중부 지역으로 빠져나가 소멸했다. 서부 걸프연안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고, 그밖에도 텍사스 북동부지역과 오하이오 계곡 저지대에도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오클라호마 남중부지역에서는 8인치 이상의 강우를 기록했고,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동부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에서는 평년보다 10°F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고, 애틀란타 남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0°F에 근접하기도 했다. 서부 지역에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남서부 사막 지대와 서부 내륙산간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특히 남서부 사막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10~120°F를 기록했다. 북부 평원지대와 중서부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몬타나 동부, 네브라스카, 다코타에서는 6월 19일부터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고 개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6/15~6/21)

열대 폭풍우 Bill로 인해 텍사스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하이오 계곡과 미시시피 중부 지역으로 비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지난 주말까지 비가 왔다. 남부 대평원 일부 지역과 동부 옥수수지대에서는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고 이 때문에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로키산맥 서쪽 지역과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6°F 이상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 옥수수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2%p 낮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3%p 낮은 상황이다. 동부 옥수수지대 일대, 특히 인디애나와 오하이오에서는 생육상황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15%p, 19%p 감소했다.

■ 겨울밀

6월 21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19%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와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12%p 낮은 수준이다. 알칸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수확률이 20%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18개의 재배지역 중 8개 지역에서는 아직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겨울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1%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2%p 하락한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1%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6월 21일까지 총 재배지의 9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과중이 끝났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5%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6%p 뒤쳐진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 과중 지연이 두드러졌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5%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와 같은 수준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높은 수준이다.

■ 쌀

루이지애나의 출수율은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출수가 전반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14~6/20)

- 유럽: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지만 북부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스페인 북부지역과 프랑스 중부지역, 폴란드 서부지역과 발칸반도에서는 5월 한 달간 이어진 가뭄 이후 지난 2주 간 강한 비가 내렸는데(10-80mm), 이번 비 덕분에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생육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탈리아, 그리스, 발칸반도 남부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동부 프랑스와 독일 중부지역과 북부지역 등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평년보다 3°C 정도 낮은 기온이 유지되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유럽 북부지역에서는 주말까지 소나기와 폭풍우가 지나가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서부와 남부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었고, 동부지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서남부 지역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려(10-60mm) 옥수수와 해바라기, 겨울밀 생장에 단비가 되었다. 불가 지구와 남부 일대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낮 최고기온이 35-50°C). 불가 남부지역에서는 6월 1일 이후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올라간 일수가 9일이었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전역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다. 북부지역에서는 10-50mm 이상의 비가 내려 옥수수와 대두 재배지역 일대를 촉촉이 적셨다. 이번 비 덕분에 낮 최고기온도 20°C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남부지역에서도 10-25mm의 소나기가 내렸고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었다. Yangtze 계곡에서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 덕분에 여름 작물 생장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다. 한반도 일대에서도 소나기가 내렸지만(25-100mm)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에서는 서부 곡창지대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남한의 경우 여전히 강수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부와 남부 벼 재배지역에 적정량의 비가 내려 생육환경이 좋은 상황이지만, 북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주 초반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주 후반부에는 전역에 걸쳐 소나기가 내렸다(15-50mm). 주 후반부에 내린 비는 지난 4주간 이어져 온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그 밖에 남부와 동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렸다. 퀸즐랜드 남부지역,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등에서도 비가 내렸다. 호주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1~2°C정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10°C 후반에서 20°C 중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여름작물 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La Pampa, Buenos Aires 북부지역, Slatá, Chaco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Formosa에는 10-50mm의 비가 내렸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2°C 정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는데, Santiago del Estero 북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영하 2°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주 후반부에는 La Pampa와 Buenos Aires 서부의 밀과 보리 재배지역 일대의 기온이 낮에는 10°C 중반, 밤에는 영하 5°C까지 내려가는 등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18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59%, 콩의 수확률은 99%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밀의 파종률은 4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남부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북부지역과 Parana 남부지역 등에서는 25mm이상의 비가 내렸고, Santa Catarina에서는 50mm 이상 비가 쏟아졌고, Mato Grosso do Sul와 Sao Paulo에서는 1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주 초반 내린 비로 남부지역 일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20°C까지 내려오는 등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고, Parana 남동부 지역에서는 밤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Parana의 이모작 옥수수가 6월 15일 전후로 과피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중부,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동부 해안의 사탕수수과 코코아 재배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10-50mm).